

아브라함, 축복의 언약

아브람(Abram)
높으신 아버지에서
아브라함(Abraham)
열방의 아버지로

히브리(Hebrew)
믿음으로 “강을 건너”
조상들의 우상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해질녘 깊은 잠 가운데
쪼갠 고기 사이로
불타는 사랑의 횃불
영원한 언약(Covenant)

낙타처럼 무릎 꿇고
축복의 손아래 머리 숙여
참된 복을 세상 속으로
복(福)의 근원 아브라함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바벨탑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고 과격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гаа, 사실이 아닌 거짓이 성행합니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바벨탑을 쌓듯이 인기를 올립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넣어서 높은 조회 수, 좋아요 버튼의 탑을 쌓아갑니다. 소셜미디어는 안타깝게도 타락의 극치를 보게 하는 어리석은 언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언어와 말은 더욱 거칠어졌으며, 부끄럽게도 죄인의 민낯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혼잡한 언어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만드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굳이 내려오셨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가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면 대단히 높지만, 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이 대단할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인기가 올라가면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물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뜻밖의 개입을 하시는데,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시도할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이었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이다.”(창11:6)

악이 세력화하는 것을 막고 권력이 중앙 집권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창11:7)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바벨 도시를 건설하기를 멈췄습니다. 어지러운 亂(란)이라는 글자를 보면, 혀 舌(설) 사람(人)의 반쪽인 亼(오른쪽 다리)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벨과 같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데, 소통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족속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은 족속, 같은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도시에 갇히게 합니다. **하나님은 갇히는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벨의 역설적 은혜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바벨은 “혼란스러운 소리”(confusing noises)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창11:9) 다양한 언어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 도시에서 계속해서 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못 알아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 알아들으면 피로운 것입니다. 많은 경우 못 알아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벨, 즉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일은 은혜입니다. 세상이 어리석고 잘못된 우상숭배와 중앙집권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의 언어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바벨의 역설적 은혜가 있습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놀라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높이 탑을 쌓고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바벨탑은 성전이라는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는 거리가 멉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벨과 같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은 아주 초라한 “성막”(tabernacle)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으며, 결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봉헌식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왕상8:27)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자기 이름 높이려고 쌓아 올리는 교회 건축, 음악,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성전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신약성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 여기서 거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천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천막을 치시는 분이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안티 바벨(Anti Babel)의 사건

바벨탑 사건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티 바벨**”(Anti Babel)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생략: 사무실앞 원고비치,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하세요)

지난주일설교

바벨, 흩어짐의 은혜 (창11:1-9)

무지개 언약

죄는 바이러스처럼 무섭게 세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땅을 심판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가워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징으로 하늘에 무지개(rainbow)를 걸어주셨습니다. 무지개는 어떤 뜻인가요? 무지개는 하늘을 향한 활(bow) 모양입니다. 즉, 자신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가 온 후에 무지개는 눈물 나게 아름답지만, 무지개를 비추는 빛나는 태양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성읍, 즉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사방을 뜻하는 사(四)는 여덟(八)명의 사람들이 동서남북(口),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 일부는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하여 도시를 형성합니다.(창10:10)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동방으로”(2절)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 반역은 “동방으로부터”(from east)라는 뜻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읽는 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며, 동쪽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위한 바벨탑

시날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높은 탑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건물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높은 탑은 단순한 건축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탑(ziggurat)을 세운 목적은 종교적 이유, 즉 우상을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상 중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창11:4) 첫 번째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독하게 박혀 있는 욕구는 명예욕(名譽慾)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창3:5)

두 번째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며, 사회는 정치화되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앙화”(centralization)됩니다. 당시에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권력구조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이면 권력 관계가 형성하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북한의 권력을 보십시오. 김씨 일가는 한 족속, 한 언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바벨을 쌓아 올렸습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중앙화(centralization)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국공산당의 중앙집권화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그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 혁명, 종교 타파, 언론 통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은 잘못된 동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하나님과의 접촉 방법을 잊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일종의 성전을 짓고 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내려와서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부리려는 인간의 일방적인 종교적 모습입니다.

하나의 언어

창세기 11장은 흥미로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온 땅의 언어(language)가 하나요 말(speech)이 하나였다.”(1절)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바벨탑 이전을 상상해보지 않았습니까? 외국어 공부하는 것이 싫을 때 왜 바벨탑을 쌓아서 후대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불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가 하나이면 선한 일을 할 때 유익하지만, 악한 일을 할 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을 흉내 내어 자신들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로 최고의 건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건축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벽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자로 벽(담)은 흙 土(토), 풀 초(+), 합할 습(합)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흙과 풀을 섞어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했는데 사람(人)이 하나의(一) 입(口), 즉 “같은 언어”(same language)로 소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바벨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을 꼽으라면 “소셜미디어”(social medi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선하게